

종교개혁의 현대적 조명

주 재 용 박사

목 차

I. 서 론	오늘의 세계
II. 종교개혁을 가능케 한 요인	V. 한국 교회 개혁의 방향
III. 종교개혁의 기본 사상	VI. 결 론
IV. 개혁을 요구하는 변화된	

I. 서 론

주어진 제목을 오늘이라고 하는 빛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다시 비추어 보겠다는 것이고 오늘이라고 하는 빛에서 종교개혁의 의의를 묻고 대답을 해 보자는 시도가 본 주제에 포함되어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종교개혁은 16세기 종교개혁을 말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4세기가 지난 오늘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인데, 오늘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개념만이 아니고 공간적인 개념도 있기 때문에 16세기의 종교개혁을 20세기에서, 그리고 한국이라는 장소에서 다시 한번 그 의의를 물어 보겠다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결코 16세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대적 조명은 오늘에서 과거를 비추어보는 차원만이 아니고 과거의 사건을 오늘에 재현시키는 상황도 있다. 다시 말하면 16세기의 사건을 여기서 다시 음미한다고 할 때 16세기 자체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과거를 오늘에 비추어보는 이유가 있지만 동시에 과거의 사건을 오늘에 재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한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오늘에서 재해석하고 그 역사를 오늘에 사건화 시킨다는 뜻이

다. 다시 말하면 오늘에서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16세기 사건—오늘에서 다시 사건화 시킨다는 것이다. 저는 “역사는 해석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16세기에 대한 오늘의 우리의 해석은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와같은 전제 속에서 강연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다.

첫째는 종교개혁을 가능케한 요인들이 어떠한 것이었느냐?

둘째는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의 본질이 무엇이었느냐?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의 기본사상, 자세등이 어떠한 것이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

셋째는 개혁을 요구하는 변화된 오늘의 세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 그러한 네 부분으로 나누어 말해 보겠다.

II. 종교개혁을 가능케한 요인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은 M. Luther 가 1517년 10월 31일 위滕베르크(Wittenberg) 대학 교회 게시판에 95개 항목을 내걸고 토의를 요구한데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올해는 종교개혁 464주년(1981년)이 된다. 그러나 루터의 이 사건은 째가 무르익어 터진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랬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기 까지는 오랜 기간에 여러 걸레에서의 이 시대를 향해 흘러온 흐름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혁을 지향해 온 형성적 요인들이 있었다. 우리는 이 개혁을 향해 지향해온, 형성된 요인들을 다음 몇가지로 요약하려 한다.

첫째, 중세 신비주의의 사상이다. 중세 신비주의는 밀기 스콜라주의에 대한 반동에 의해서 등장한 사상이다. 밀기 스콜라주의 신학에서는 이성과 계시, 철학과 신학을 분리했다. 따라서 소위 선협적 신지식 추구의 가능성은 부인되고 있었다. 선협적 신지식 추구란 철학적 혹은 이성적으로 신지식, 신을 추구해 가는 그 길을 선협적 신지식 추구의 길이라고 말한다. 신에 대한 지적 추구를 포기하고 그 반면에 깊은 사색을 통

해서 신의 지식을 얻으려고 한 것이 신비주의 사상의 일반적 경향이다. 신비주의는 반 스콜라주의적 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우리는 중세 신비주의자들의 대표자를 예 하르트, 존 타울러(John Tauler) 또는 “그리스도를 본 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 Kempis, 이러한 사람들로 대표되는 중세 신비주의는 말기 스콜라주의에 대한 반동 운동의 대표자들이다. 신비주의 경향을 떤 단체들은 폴란드에서 있었던 “Brethren of the Common Life”(공동생활 형제단 또는 공동생활 자매단), 라인 계곡을 중심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친구들”, 이러한 단체들이 중세 신비주의의 경향을 받은 단체들이다. 이러한 신비주의 운동의 공통된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신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타울러는 우리안에 탄생하는 신을 주장했고, 예 하르트는 인간 영혼에서의 신의 섬광을 주장했다. 둘째는 교회 생활의 활력화 강조이다. 그들은 신앙 생활의 활력성이 없으므로서, 다시 말해서 스콜라주의 신학에 의해서 형식화되어서 교회가 무기력하게 된 것에 대한 비판을 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권의 지배 하에서 그 생동감이 있는 영향력을 잃고 있었다. 교회 생활은 하나의 의무화된 것 이었고 따라서 신과의 순수한 만남은 없었다. 교리화된 신만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교리화된 신, 그리고 우리가 생생하게 신을 경험한다고 할 때 그 신, 경험된 신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는다. 신비주의는 이와 같은 교리화된 신, 그것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음을 비판 했다. 그들은 교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고 그 당시 교회를 비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는, 소위 체험된 신 지식을 강조했다.

우리들이 신비주의자들의 주장에서 생각할 것 하나는 형제단 운동에서 강조된 “금일의 혼선운동”이다. “금일의 혼신”이라는 말은 형제단 운동에서의 생활의 신조같은 것인데 이들은 매일 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다시 생각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그 시대에 성취하려고 노력을 했다. 오늘날 루터 사상 속에 중세 신비주의 사상이 깊이 숨겨져 있다는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루터는 10대 소년때의 교육을 이 형제단 운동이 설립한 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리

100/아르니아

고 그는 청소년 때 즉 가장 예민할 때 형제단 운동의 영향을 가장 깊이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루터의 종교개혁 속에 신에 대한 생생한 경험, 교리화된 신에 대한 규정, 그런 것은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의 형성요인으로 르네상스를 언제나 들고 있다. 르네상스는 흔히 문예 부흥운동이라고 말하는데, 이 문예부흥운동은 그 내용에 있어서 다각적이고 다양하다. 그러나 이 문예부흥 운동으로 우리는 다음 몇 가지가 활발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로 고전 연구가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고전 연구는 고대어의 연구로 대표될 수가 있겠다. 고대어의 연구는 새로운 학문을 발전시켰다. 그 결과로 아카데미 크리티시즘(academy criticism)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학문적인 비판주의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피치노(Marsilio Ficino)라는 사람은 헬라어를 연구한 나머지 그 당시 가장 권위 있고 신성 불가침하게 보여진 라틴어 성경인 불케이트(Vulgate)를 그는 여지없이 비판하고 신약성서의 헬라어 원문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한 사람이다. 이 전통을 이어 받은 에라스무스(Erasmus)는 가장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 헬라어 연구의 권위자가 된 사람이다. 그는 불케이트를 연구해서 거기에서 잘 못 번역된 오역을 지적해 불케이트 성경의 권위가 문자에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성경의 진리를 원문으로부터 알아야 한다고 강조를 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비평주의를 가장 먼저 내놓은 발라(Valala)는 그 당시까지 가장 권위 있는 문서로 남아 있었던 “콘스탄틴 황제의 기증서”라고 하는 것이 거짓 문서라는 것을 발견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근거하고 있는 문서를 근거로부터 흔들어 놓았다.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콘스탄틴 황제의 기증서”는 8세기경 로마 교황청이 이태리 로마 근처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 문서이다. 8세기에 이어 교황청은 계속해서 이 문서에 근거해서 로마 주변에 있는 땅들을 로마 교황청의 소유로 삼고 있었다. 로마 교황청은 토지가 많아짐에 따라서 <봉건지주의 체제 하에서 지주의 위치에 있었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발라는 이 “콘스탄틴 황제의 기증서”가 거짓 문서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로마 교황청이 가지고 있는 땅, 그것은 거짓

문서에 의한 좌취였다고 하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보여 주었다. 그는 그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저작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 한 사람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시대가 과학의 새로운 시대로 열려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자연과학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서 새로운 우주관이 싹트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지구 중심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말았다. 우리는 르네상스운동 가운데서 고전 연구와 학문에 대한 비판정신이 종교개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형성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평가하고 있다.

다음 우리는 르네상스 가운데서 고전 연구에 이어서 휴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르네상스는 고전 연구와 비판정신을 가져다 주었지만 또 한편 르네상스의 중심의 하나는 휴머니즘이었다. 이 때의 휴머니즘(인본주의)의 특징은 한 마디로 말해서 인간해방이다. 이 인간해방은 그 당시 교회로부터의 해방이나, 다시 말하면 이 때의 인간해방은 어떠한 정치 권력에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로부터 해방이다. 교회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말은 다른말로 말하면 교황으로부터 해방을 뜻한다. 교황의 지배로부터의 해방, 또 다른말로 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침해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 개념은 신은 십판의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언제나 부각되고 있었다. 루터가 마지막까지 고민한 것의 하나가 있다. 그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십판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루터는 어려서부터 신은 무서운 공포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이 그가 마지막까지 투쟁한 과제의 하나였다. 그 당시 휴머니즘은 이와같은 신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 만일 오늘 우리들에게 인간해방의 의미가 정치적 용어로 사용되어 어떠한 독재 혹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현대 산업화 과정에서 보여지는, 비인간화로부터의 해방, 그런것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 때의 휴머니즘에서 말하는 인간 해방은 철저히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내세운 신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이다. 이 때의 휴머니즘은 자기가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자작, 나

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개아(個我)의 발견, 주체로서의 나의 발견, 그리해서 지금까지 신적인 것에 관심했던 바를 인간적인 것에 관심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 휴머니즘의 큰 특징이었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친양이 예술에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 당시 예술작품을 보게되면 적나라한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것을 흔히 보게 된다. 우리는 지난 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이 세계를 지배할 때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 그려지는 작품속에는 끼그러지고 이글이지고 눈이 바로 잡혀있지 못한 인간의 실존상을 볼 수 있었는데 반해서 르네상스 시대의 휴머니즘에 의한 예술 작품속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의 나체 모습을 볼 수 있다. 적나라한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휴머니즘의 하나의 영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저는 르네상스에서 고전 연구에 의한 비판정신과 인간의 재발견이라는 말씀을 드렸다. 이것이 종교개혁 운동의 형성 요인의 중요한 요인이다.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형성요인 세번째는 “교회 회의 운동”을 들 수 있다. 15세기 전반부를 특징 지어준 교회 운동이 있었다면 “교회 회의 운동”이라고 말한다. 이 교회 회의 운동의 시작은 파리대학의 교수들에 의해서 주장된 것이다. 그런데 이 회의 운동의 중요한 목적은 교황청의 개혁에 있다. 그러므로 15세기의 교회 역사에 나타난 이 회의 운동은 철저하게 교황청 개혁 운동이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철저한 중앙 집권체제이었고 교황의 절대권 밑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때의 교황청은 매우 부패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교직의 매매사건이 빈번했다. 교황청은 정치권력을 누리기 위해 또한 교황청의 사치스러운 생활의 비용을 얻기위해 교황청은 교직의 매매를 하고 있었다. 그 매매의 사건 한 예는 교황청이 임명하는 감독은 첫 해의 모든 수입을 교황청에 바쳐야 했다. 그러므로 새로 부임을 한 감독은 교황청에 첫 해의 모든 수입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교구속에서 교황청에 바치는 것 이외의 자기의 생활을 위한 것을 다시 거둬들여야 했다. 그러나 두번째 해에서부터는 바치지 않아도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청은 감독들의 인사이동을 빈번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감독은 그 직에서 언제 물려날 줄 모르기 때문에 감독으로 있는

동안 재산을 모아두기 위해 마치 우리나라 근대사의 역사를 부패하게 했던 관리들의 부패, 탐관오리, 탐악 등이 그대로 자행되고 있었다. 교황청은 돈을 각국에서 모으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독일이나 불란서 지역에서 돈을 모아들이기 위해서 독일이나 또는 불란서 지역의 감독을 교황청이 직접 파송하고 있었다. 때로는 이 교황청의 교황과 그리고 독일과 불란서 지역을 관할하는 정치 지도자들과 충돌 사전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노센트Ⅲ는 독일 왕 오토, 불란서왕 필립Ⅱ, 영국왕 존 등을 굴복시키기도 했으나, 후불란서왕 필립Ⅳ는 교황 보나페이스Ⅷ에 대항하여 화폐유출을 금지시키었다. 그 사전은 가장 대표적으로 교황권의 교권과 정치, 곧 권력과의 투쟁의 역사의 상징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은 정치 투쟁을 하기 위해서 교황청은 막대한 경비를 필요로 했다. 교황청의 이와같은 부패를 개혁하고자 파리대학의 교수들이 주동된 교회 회의는 교회 최고 결정권은 교황이 가질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체 회의가 가져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교회 회의에 교황도 순종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 교회 회의 운동은 성공은 하지 못했다. 교회 회의운동 가운데서 중요한 잘못의 하나는 보헤미아(Bohemia)에서 종교개혁자 존 홉스(John Huss)를 이 교회 운동에서 처형했다는 것이다. 교회 회의운동에서 스스로 모순된 일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존 홉스는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보헤미아에서 교회 개혁 운동을 했는데 그의 지나친 교황청 개혁운동이 온건한 교회 개혁운동을 지향하고 있었던 이 교회 회의 운동가들에 의해서 처형되었다고 보아야겠다. 회의 운동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종교개혁의 한 운동의 샘플로 역사에 남아 있다.

종교개혁 운동의 형성요인 네번째는 민족주의이다. 민족주의는 르네상스와 교회 회의 운동에 의해서 자극되어서 일어난 사상이다. 로마 교황청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비판은 교황청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불가능하게 했으며 따라서 게르만 민족은 게르만 민족대로 교황청에 대한 반발운동이 점차 싹트게 되었다. 교황청의 차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운동이 민족단위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이다. 민족주의가 가장 강하게 요구되었던 곳이 바로 독일이다. 당시 독일의 농민은 구리피에서 가장 차취를 받고 있었던 대상들의 한 예이다. 우리는 종교 개혁 당시의 농민

104/아르니아

혁명 운동이 일어났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다른 지역보다도 독일에서 농민 혁명 운동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으며 그 정신적인 깊은 흐름은 독일 게르만 민족의 민족주의 사상에서 기원한다. 회의 운동의 마지막 회의에서는 어떠한 민족이든지 이 회의 운동에 가담한 수가 1/3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만들었으므로 민족주의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이와같은 여러 흐름이 한 곳에 모여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여러 흐름을 한 몸에 지닌 사람이 마틴 루터였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 본다.

III. 종교 개혁의 기본 사상

종교개혁의 기본 사상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protest라는 말에서 찾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개신교를 protestantism이라고 하는데 이 protestantism은 protest에서 유래했다.

항의가 없이는 개혁은 불가능하다. 새 가치의 시작은 옛 가치에 대한 항의와 부정에서 시작이 되고 가능하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개혁은 가능할 수가 없다. 기독교 정신사에서 살펴보면 이 항의의 정신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율법적 제사주의에 항의했던 예언자들에게서 우리는 이미 항의의 정신을 보고 있다. 위선적 종교 지도계층에 항의했던 예수에게도 항의의 정신이 있었으며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의 삶이 율법주의에 대한 항의였다고 보아야겠다. 세리와 청녀의 친구가 됐던 예수의 삶은 위선적인 기준 종교인에 대한 항의하는 삶의 모습이다. 교회의 세속화에 항의했던 수도원 운동도, 영국에서의 존 위클리프, 보헤미아에서의 존 홉스,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영국에서의 청교도운동, 존 웨슬리 운동, 미국의 대작성 운동 등은 모두 기독교 역사에서 보여준 항의 운동의 점철들이다. 우리는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30년 전쟁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독일의 사회, 그 사회를 독일 루터파 교회들이 루터의 개혁 사상을 화석화시키고 교리화시킨 나머지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개탄한 독일의 일부 루터파 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싹 턯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독일의 경건운동은 스웨덴과 프랑스에 의해서 전개되었고 할리대학이

이 운동의 중심이었다. 존 웨슬레 운동은 영국의 기존 교회가 특히 영국의 성공회가 교리에 의해서 그들의 사회를 개혁할 수 없음을 알고 새로 운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서 도시로 몰려든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증거 할 목적으로 일어난 운동이다. 그 당시 영국에서는 역사 이래 가장 술의 판매량이 많았다 하는데 청년들이 모이면 술을 누가 더 많이 마시나 하는 내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회에서 사회개혁 운동으로 웨슬레 운동은 일어났다. 미국의 대작성 운동은 18세기 미국의 대공항속에서 일어난 교회의 새로운 작성운동이었다.

이러한 운동은 다같이 기준에 대한 항의 정신운동이다. 사실 개혁파 탈바꿈은 옛 털을 벗어 버리는데 의미가 있다. M. Luther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항의를 했다. 그 항의는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성서적 진리를 들어내기 위함이었다. 그것을 우리는 그에 의해서 성서가 재발견 되었다고 말한다.

루터가 위텐베르크 교회 게시판에 95개 조항을 내붙였을 때 그는 그의 서문 제일 먼저 “진리를 밝히고 싶은 열정에서”라는 말로 시작했다. 진리를 밝히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힌 루터는 진리를 밝히는 열정에서 기존의 교회에 항의를 했다. 그의 95개 조 항의는 비진리에 대한 항의 문서이다. 그는 이 항의를 하기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써야만 했다. 그 예로 우리는 그가 윌스 국회로 호출되어갈 때 그의 동료들은 그를 구구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는 윌스 국회에 호출 되어가면 그는 거기서 죽게 되어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동료들에게 “비록 윌스시에 나의 적이 그 도시의 기왓장 만큼 많다해도 나는 가겠다”고 하면서 윌스시를 항해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재판을 받을 때 마지막 그는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라는 말로 자기의 모든 주장을 끝냈다. 그래서 유명한 루터 연구가인 베인톤 박사는 루터의 전기를 쓰면서 그의 책 이름을 영어로 “Here I Stand”라고 했다. 1520년 루터는 교황의 교서를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우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들은 진심으로 교황의 지배에서 떠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악한 세대에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완수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으로 양심에 짐을 지우는 것보다

106/아르니아

차라리 모든 위험을 참고 견디려 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 당시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 교황의 교서, 그 교서는 이미 파문같은 것인데 시민권, 일반 행정권까지도 박탈할 수 있는 교황의 사면장을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면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침묵을 할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16세기 종교개혁은 “믿음만으로, 은총만으로, 성서만으로”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이 세 가지 “만” 속에 종교개혁의 가장 깊은 사상이 집약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프로테스탄티즘의 가장 기본되는 정신이기도 하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격 사상에 대한 비판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회 전통 사상에 대한 비판에서 온 것이다. “믿음만으로, 은총만으로”라는 말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적사상에 대한 대항이다. “성서만으로”라는 말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회 전통 권위에 대한 반제(antithetic)이다. 우리가 아는대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기의 어떠한 공적으로 인간이 구원 받는다고 가르쳐왔다. 그것 때문에 어떤 행위를 강조했지만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면죄부 판매가 성황을 이루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 면죄부는 16세기에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미 12세기의 십자군 운동에서부터 기원하고 있다. 십자군 운동 때 군인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로마의 교황청은 “여러분이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와서 싸움에 나가면 여러분의 공적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고 했다. 그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적사상이며 면죄부의 사실적인 기원이 되고 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선행을 강조했다. 그러나 선행 자체에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선행이 바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루터가 1920년에 “선행에 관해서”라는 글을 쓴 것을 알고 있다. 루터는 “선행에 관해서”라는 글 속에서 결코 그는 선행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데 그는 비판한다고 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의 절대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서보다도 교회 전통에 더 큰 권위를 두었으며 신앙생활의 표준을 교회 전통에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로마 교황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고 그것은 절대 무오한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지 인간의 공적에 의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믿는데서 얻어진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선행 때문에 선행의 댓가로 구원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했다. 인간은 자유로운, 자유인에 의한 자유로운 삶의 존재라고 했다. 그런데 루터는 인간이 선행을 한다든지 할 때 그것은 선행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선행을 하는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자발적인 행위여야 한다고 했다. 다시말하면 내가 어떠한 구제를 한다고 할 때 구제를 하는것이 선행이지라는 그것에서 구제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인의 자발적으로 나온 행위여야 한다는 말이다. 루터는 1920년에 선행에 관해서 글을 쓰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예속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여기서 끝마치지 않았다. 만일에 루터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끝마쳤다면 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대로 지난 세기 휴머니즘의 운동에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루터는 그 다음 이어서 바로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주인이며 동시에 만물의 종이라는 말이다. 이 이율배반적인 성격같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사상이 바로 종교개혁의 기본입장이다. 다시말하면 종교개혁은 자유로운 인간의 항의인데, 그 항의는 기존 질서에 대한 항의임과 동시에 만물을 섬기기 위한 항의라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기존 질서를 개혁하기 위해서 항의한 그 항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만물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diakonia’, 다시 말하면 선교라는 차원에서 섬김의 종이 된다는데 있다. 이 사실은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며 동시에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의 기본 정신이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성서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금지된 책 이어서는 안된다. 그 진리는 감춰져 있어서는 안된다. 금지된 책을 그는 공개했으며 누구나 성서에 접근하게 했다. 그리하여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 성서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내진 책이다. 이 성서의 재발견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시작이 됐다고 말할 수 있다. 윌리암 스코트(William Scott)는 “Historical Protestantism”이라는 책에서 루터의 개혁의 두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하나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원리요, 둘째 원리는 개혁은 항상 성서의 발견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이다. 성서 말씀에 근거한 자기 개혁은 프로테스탄티즘의 기본 정신이다. 그러므로 프로테스탄티즘 입장에서 개혁은 한번에 끝내지는 것은 아니다.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말하는 개혁은 다시 계속되고, 다시 일어난다.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말하는 개혁의 자세는 다시 되풀이되어야 하는 것이다. 16세기 종교개혁은 16세기에서 끝날 수가 없다. 전술한대로 16세기 종교개혁은 그 이후에 많은 개혁운동들에 의해서 다시 되풀이 되었다.

IV. 개혁을 요구하는 변화된 오늘의 세계

나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프로테스탄티즘의 기본 개혁의 원리라고 말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특히 프로테스탄티즘에 근거해 볼 때 오늘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또 다시 개혁을 필요로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내 소신이다.

교회 개혁은 16세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미 16세기 종교개혁사상이 굳어지고 도그마화 되었을 때 영국과 독일 등에서 개혁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전술하였다. 현대에서 교회가 교회되려면 교회는 다시 개혁되어야 한다. 평신도 신학을 저술한 H. 크레머 교수는 말하기를 “16세기 종교 개혁보다도 더 철저한 교회 개혁이 있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형성하도록 성령과 세계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한 말이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루터가 교황의 교

서를 불태우면서 한 말 —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투쟁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는 것 보다는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겠다 —과 크레mer 교수가 한 말 —왜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을 다시 해야 하나?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다시 반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응답을 다시 형성해야 되겠다 —과 사이에 대단히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생각하고 형성하게 하는 압력이 두 곳에서 가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가 처해있는 오늘의 세계고 다른 하나님은 성령이라고 하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로부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하도록 하는 압력을 받고 있고 이 압력을 우리는 회피할 수가 없다. 이 압력을 회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는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대적 상황을 가진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 때 그것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도록 한다는 말이다. 예언자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신 것과 똑같은 형태와 똑같은 형식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니다. 이사야 소명은 그 시대의 특성을 가진다. 우리는 8세기 예언자들의 소명과, 예언활동에서 그것을 읽어야 할 것이다. 예언자들의 예언의 내용은 그 예언자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그것이 예언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을 이해해야만 한다. 우리는 그들의 예언을 그 시대를 떠나서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시대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시대의 기존 질서에 대한 항의를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6세기 독일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20세기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오늘 여기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여기 불가피하게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교회개혁이 요청되고 있다. 지금은 교회가 세계 속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투터도 미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투터는 세계 속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는 루터의 교회관 속에서 비판해야 할 것 하나는

110/아르나아

루터는 역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루터에게는 이왕국적인 사상이 있다고 하겠다. 루터의 이왕국설은 물론 어거스틴에서 유래한 것이고 중세 스콜라주의 신학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루터는 이 이왕국설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교회를 재발견했다. 그것은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세계 속에서 세계를 봉사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가 교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계 속에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세계가 변하는데 교회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만일에 불변한 채로 있다면 교회는 그 시대에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선교하는데 있다.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라” 이 말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차원에서 지금부터 약 20년전에 부르짖던 말이다. “교회가 교회되게”라는 말은 교회로 하여금 가장 기본적으로 선교의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데 있다. 그런데 선교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지난 세기의 선교는—루터의 종교개혁까지도—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왕국 전설이었다. 그러므로 그 당시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어부가 되라”는 말씀은 마치 어부가 고기를 잡아 바구니 속에 감금하는 것 같기만 생각했다. 그것이 선교였다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의 선교는 어부가 되어 고기(사람들)를 잡아서 자기의 바구니 속(교회)에 넣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람들을 사회에 나가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 것 만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을 교회에 유폐시키고 만나는데서 문제를 발견한다. 19세기까지도 선교는 이러한 차원이 많이 있었다. 특히 서구 열강국들의 침략적 행위와 더불어 온 선교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것과 연결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선교는 사람을 낚아서 교회에 유폐시키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모여온 사람들을 다시 세상에 내 보낼때까지 가야만 선교는 끝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변화된 세

계 속에서 교회는 탈바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I. M. C 운동(국제선교협의회)에서는 교회가 선교의 항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선교의 항목을 결정한다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한다는 것이다. 세상이 주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교회는 단지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 뿐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교회에 존재하기에 앞서 세상에 존재하신다. 그것을 “오늘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한다. 유명한 스위스의 종교 사회 운동의 지도자인 Kutter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다.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은 종교 없는데서 역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종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손을 뗄 수도 있다. 하나님은 한 주체적인 현실로서 그의 의를 인간을 통해서 관철하는 것이다. 교회, 예배자, 구별된 장소나 시간을 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Kutter는 그 당시 사회에 대한 무감각한 교회를 여지없이 비판해서 종교 사회 운동을 부르짖던 사람의 한 사람이었다.

“신에게 출직히”라는 책을 쓴 로빈슨이 1965년 “새 종교 개혁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종교 개혁은 끝났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16세기부터 종교 개혁은 이미 끝났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 책을 개혁이란 무엇이냐? 고 물음표를 붙였는데 그가 말하는 새로운 종교 개혁은 무엇이냐? 이것은 전파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에서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에게 출직히”라는 책을 읽을 때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로빈슨은 “신은 저 높은데 계신가? 신은 지평선 저편에 있는 건가? 라고 묻는다. 그러면서 그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신은 결코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신은 인간의 삶의 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기독교 이후의 시대가 오늘이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세속 시대이며 성숙한 시대로서 종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현대는 신이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서 삶의 변두리에 있는 시대이다. 전에는 신은 저 높은 곳에 초월해 있다

112 / 아르네아

고 생각했으나 현대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저 높은 곳에 초월해 있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다. 이와같은 시대 속에서 교회가 형태 변화를 하지 않고서는 교회는 선교를 할 수가 없다.

본 회퍼는 크리스챤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방법으로 종교적이 된다거나 어떤 금욕수양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는 “크리스챤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용을 계속 하기를 “예수는 사람을 새로 운 종교에 부르지 않았고, 예수는 사람을 삶으로 불렀다”고 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기독교의 비종교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비종교화는 기독교가 종교화 되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 개혁은 기독교가 종교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된다는에서부터 시작된다. 새로운 종교 개혁, 그것은 기독교가 종교화 되었다는 것, 즉 예수 당시에 율법주의화된 기존 종교와 같이 되었음에 대한 개혁을 뜻한다.

V. 한국 교회 개혁의 방향

기독교가 종교화되면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척하고 지나가 버릴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암식일에도 주인이 된다. 신앙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되게 하는데 궁극의 목적이다. 한국 교회의 종교화 모습을 다음과 같은 모습에서 찾아보고 싶다.

첫째, 성직자들의 교권주의다. 성직자들의 교권주의는 성직자들의 지배의지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다. 성직자들은 지배의지의 노예가 되고 있다.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섭김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권위 의식을 가지고 따라서 자기 독단을 전개하면서, 교회의 무질장한 지원인 평신도를 무시하면서, 자기 독단에 빠지고 있다. 오늘 한국 교회 매다수 성직자들의 이 교권주의는 바로 한국 교회의 종교화 현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본 회퍼는 그리스도를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했다.

성직자들의 이 교권주의는 바로 성직자들의 독단주의 혹은 율법주의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교회를 고질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많은 교회가 맘모스 침례와 맘모스 교회를 건축하려 하고 성직자들은 지배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직자들의 물량적 가치관에 의한 지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자기가 이 교회를 자기의 교회로 지배하려는 의지가 거기서 나온다. 자기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 교회를 세워서 누구든지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하는 사상을 많은 사람에게 주입시키려고 한다. 교회는 그의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잊어서는 않된다. 여기 한국 교회 성직자들의 지배 의지의 결과 교권주의가 나온다.

둘째, 한국 교회 종교화 현상은 한국 교회의 지나친 사치에서 보여진다. 나는 이 사치가 바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여진다. 한국 교회는 지금 수십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있다. 눈먼 자, 절둑발이, 벙어리, 가난한 자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과연 오늘 이와 같은 교회에 입재하고 협존하고 있을까? 나는 이 한국 교회의 이와 같은 지나친 사치스러움이 바로 요한 웨슬레가 영국 성공회를 비판할 때 영국 성공회의 모습의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또 독일 경건운동이 독일의 루터파 교회를 비판할 때 루터파 교회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다. 휘황찬란하게 장식된 교회에 가난한 자, 놀린 자의 해방을 위해 오신 하나님이 혼한다고 선포할 수 있을까?

셋째로 한국 교회의 종교화는 교회 의식화, 교회 형식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 기존 교회 예배 의식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그 의식은 매우 형식적이다. 그 예배 의식에 과연 감격이 있겠는가 의심이다.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내적인 경험을 과연 오늘의 교회 예배 의식에서 받을 수 있을까? 성직자나 교회 신자들이나 다같이 예배의식이 하나의 형식화되고 그리고 예배의식은 하나님의 악세사리이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던 그 사실은 참석에 의의가 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석에서 끝나고 있고 교리주의에 빠져 따라서 성직자들의 설교는 사람들의 심증을 울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기지식,

114 / 아르니아

자기교리, 자기독단, 자기 도그마의 나열이 되고 있다. 이런것은 한국 교회의 생명없는 종교화의 현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번 C.C.A(아시아교회협의회) 총회가 “민중과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를 주제로 내 걸었음에 주목한다. 오늘의 교회는 민중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런데 오늘의 기존 교회에서 민중과 더불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과연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한국 교회의 종교화는 오늘 한국 교회의 분열의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가장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소위 정통파들, 이들이 계속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깊게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교회 개혁의 기본원리는 교회는 사회를 봉사하는 대로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개혁은 사회개혁, 사회개혁은 교회개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루터가 토마스 문처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독일 농민 혁명 운동을 비난하고 중지하게 한 것은 루터의 잘못이었다고 생각하고 비판한다. 토마스 문처의 농민 혁명 운동은 종교 개혁파, 사회 개혁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대표적인 운동이었다고 생각된다.

넷째로 교회의 선교 과제는 사회, 민족의 과제와 일치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개혁하는 것은 선교를 위한 것인데 그 선교의 과제는 그 시대의 역사, 그 시대의 민족사적인 과제와 일치해야 한다.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나는 19세기 다시 말하면 1910년대까지의 한국 초기 개신교 역사에서 그 사실을 언제나 강조하고 있다. 나는 최근 KBS-라디오 제1 방송에서 “한국 개신교 100년 그 역사적인 재평가”라는 방송에서 1910년대의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선교사를 평가했다. 1910년대, 구 한말 그 당시 우리나라 민족사의 과제는 반봉건사회, 봉건사회개혁, 다시 말하면 인권평등사상, 사회정의운동 또는 반외세침략, 자주와 독립, 이런것이 민족사적인 과제였는데 바로 이것이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1910년대의 선교적 과제였다.

초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입교 동기에서도 그것은 분명히 나타난

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입교하게 된 동기에는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간다는 것은 거의 없었다. 첫째로 그들의 입교 동기는 신세계에 대한 갈망, 신지식에 대한 갈망, 둘째는 탐학과 가볍 주구에서 해방되는 것, 셋째는 독립운동이 그들의 동기였다. 그리고 초기 한국 그리스도 교인들의 설교의 채이 주로 출애굽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어서는 안된다.

교회 구조도 선교하는 교회 구조로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건물, 교회 조직,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교회에서의 평신도의 발전 등등 모두가 다 그런것이다. 이런것을 요새 우리는 전복음을 전세계에 알린다고 한다.

VII. 결 론

오늘 우리의 민족사적인 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본다. 그것은 하 나는 민주화의 과제이고 다른 하나는 정의 사회 실현이며 다른 하나는 남북의 통일이라고 본다. 만일 이런것이 오늘 우리의 민족사적인 과제라면 오늘 한국 교회의 개혁 운동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선교적인 사명을 위한 그들의 개혁은 바로 이러한데로 방향지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교사 중심주의나 개교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전민족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교회로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가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교회는 그 시대의 역사속에서, 그 시대의 역사의 항복에 맞는데로 개혁되어야만 한다. 교회는 항상 그런점에서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본교 신학과가 주최한 종교개혁 기념 강연회의 강연 내용임을 밝힌다.